

# 사고방지와 안전경영

## 1. 사고의 원인과 교훈

사망자 3백여명, 부상자 1천여명에 이른 대형사고인 서울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은 우리에게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는 산역사의 교훈으로 인식될만 하다. 처음부터 안전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건설되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라는 개념이 전혀 도외시되다시피 하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사례는 비단 삼풍백화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사항이라 생각된다. 어쩌면 우리의 건설문화내지 안전문화가 허술한지도 모른다. “대충 대충 해버려”, “빨리 빨리 해”, “그점은 염려말아, 내가 관청에 가서 공무원에게 부탁해 놓을게”라는 관행들의 일상화가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안전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귀중한 목숨들을 앗아가며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계속운명을 전제로 하여(going concern) 설립된 기업의 운명마저도 끝을 맺게 된다는 점에서 경영에서 안전이란 빼놓을 수



노순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없는 사항이다.

건설물이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는 무생물체인 건물이나 시설 및 기계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매개체를 찾아보면 역시 사람이 개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을 줄여서라도 완공해야겠다는 성급한 생각이나 충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단기간내에 돈을 벌겠다거나 공사시 재재를 제대로 넣지 않고 그 차액만큼을 착복한다든가 이미 지어놓은 건물에 대해 안전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증·개축하는 형태들이 그에 속한다.

그리고 작업장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일해 왔는데 뭘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와 같은 방심된 마음이 사고를 부르는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안전에 대한 관념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 우리가 근무하는 작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안전의 개념과 관리

안전이란 어떤 위험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거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게끔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안전을 확보한 작업장이나 현장에서는 노동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며 건설물장치, 기계재료 등의 손상파괴로 인한 잠재 위험성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앞으로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고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생산관리가 필요하듯이 안전관리도 필요하다. 어쩌면 안전을 생산보다 우위에 두

## 사고방지 와 안전경영

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전은 기업경영 중 생산과 직결되며 안전관리는 생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있어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지만 그 근본된 바탕에는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안전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기업경영에 까지 고려되어야 할 성질이다.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을 확보케하여 모든 재해로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비나 보상금이 수반되기는 하겠지만 역시 사고의 원천을 봉쇄하는 조치가 더욱 필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조달이 필요하지만 그 자원들이 안심하고 유쾌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나 시설안전, 안전도의 점검 등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증적인 분석의 결과에 의해서도 나타났지만 안전이 확보되어 있고 작업환경이 밝은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업무성과나 실적이 뛰어난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각 기업에서 안전상의

문제나 결함이 있다면 그것을 일찍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기업이나 부서에서는 자신의 조직에서 재해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추세를 분석한 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생산부서의 예를 든다면 어떤 작업과정에서 어느 작업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는가를 파악하고 작업방식에서 개선해야 할 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작업장마다 안전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근로자가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 그에 상응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과정에서 약간의 제품제조실적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중시했다면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시적인 생산량보다는 비가시적인 안전을 중시한다는 생각은 이미 선진공업국에서는 시행해오고 있는 바이다. 철강을 생산해내는 미국의 US스틸사에서는 회사방침으로 첫째 생산, 둘째 품질, 셋째 안전을 정하였다. 그런데 공장현장에서 많은 재해가 많이 발생되어 사망이나 부상자로 인하여 경영 성과가 오르는 커녕 비용·손실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게리(E.H Gray) 사장은 첫째 안전, 둘째 품질, 셋째 생산으로 바꾸고 안전작업

에 관한 시책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재해의 감소는 물론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량도 동시에 개선되기 시작했다. 즉 안전상의 확보를 철저히 지키면 품질은 물론 생산량까지도 높아지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매년 경제가 성장하여 로스토우(W. W. Rostow)에 의해 주장되었던 경제발전 단계중 마지막 단계인 대량소비사회에 돌입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건이 필요한데 그 물건은 대체로 공업상의 제조과정을 거치게 된다. 설령 농산물인 경우라 하더라도 기계나 도구라는 수단에 의해서 산출이 가능하므로 전산업에서 안전의 문제는 관련되게 된다. 즉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계와 결합된 노동을 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항상 위험이 잔존해 있으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 생산량을 더욱 높여야 하는 경우 더욱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예상치 못했던 큰 재해가 발생될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기업은 생산활동에 있어서 노동력의 유지 및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은 물론 노사관계의 안정 및 재해예방을 포함한 근로조건

의 향상 등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은 기업내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생산작업장에서 작업과정중에 지켜야 할 특수지식과 합리적인 작업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안전이 절대로 필요하며 안전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산업의 고도화와 다양화에 따른 안전조직, 안전시설, 안전시책마저 뒤따르지 못하고 또한 안전의식조차 확고하지 못하므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3. 감독자의 중요성과 안전경영

작업은 기업의 작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므로 근로자들은 작업계획에 따라 감독자의 감독과 지시에 의해 작업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감독이나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의행동에 맡기는 것이 되어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불안정한 행동을 유발하고 사고나 재해로 발전하게 된다. 재해의 직접원인에는 근로자의 무리한 작업, 즉 불안정한 행동과 기계에 불안정한 상태 혹은 양자의 관련성 때문에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재해의 발생배경에는 적절한 물적 관리나 종업원에 대한 감독, 지시를 결여한 간접원인이 있다. 이것은

관리의 결함이라고 일컬어 진다.

안전업무는 단독으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내의 여러가지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중에서 감독체제정비로서의 안전대책은 부여된 감독업무의 내용을 알고, 그 수행방법을 생각하고, 부여된 작업의 인원에 대해 어떻게 하면 통솔할 수 있을가를 생각하며, 감독력을 육성하여 직장의 통솔을 원활하게 발휘한다는 등이다.

안전은 직장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거나 의무에 해당되지만 사고가 없는 명량한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구성원 전원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감독자의 안전제일주의 혹은 인간존중의 이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떤 작업장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사고가 발생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작업중단을 하게 되면 상부로부터 질책받을 것이 두려워 숨기고 계속 작업한 결과 큰 인적, 물적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에서 감독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할 수 있다.

우리들이 직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을 얻는 데 있다. 이 수입으로 필요한 재화를 구입하고 문화생활까지도 영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기자신의 일이 가족, 기업을 위하는 것이 되고 또한 사회를 위하는 것이 된다. 그러

나 일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기업이나 사회가 건전한 발전을 계속해 나가려면 안전확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행동이나 건물이나 기계 등의 설비를 위험이 없는 상태로 하는 것이 안전확보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의 생활이나 사회에서의 생활로부터 상해를 없애는 것이 안전확보인 셈이다. 이것은 종업원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인간성의 존중으로 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재해발생은 근로자 당사자와 그의 가정과 직장의 다른 사람들과 생산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것은 유능하고 귀중한 인명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기업으로서는 재해발생에 의한 생산량의 저하, 건물, 기계, 설비 등의 파손과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image) 저하가 수반된다.

미국의 생산 제일주의에 대신한 안전 최우선 원칙은 안전을 계획한 기술적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상자수를 크게 감소시켰고 경영면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기업경영의 제일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안전 제일주의라는 것이 전문분야에 걸쳐 넓게 보급되고는 있으

## 사고방지 와 안전경영

나 아직까지 미진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많은 기업에서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계를 한대라도 더 사서 제품생산량을 증대시키려는 생각, 작업현장에서 손해가 일어나는 것이 작업장이 나빠서라든지, 근로자가 부주의해서라든가, 안전은 우리들과는 상관없다라든가, 심지어 안전표지조차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경영자나 간부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4. 사고예방의 단계 및 제언

사고예방의 단계를 보면 첫째 안전확보 조직의 편성, 둘째 위험에 대한 지식 주입, 셋째 위험소재의 발견, 넷째 개선책의 수립, 다섯째 개선책의 현실적 적용 등이다.

재해예방의 실익은 기업경영의 합리화, 작업환경상에서 발견되는 안전상의 개선 등으로 능

률화를 기하며, 생산품질의 확실성과 종업원의 소질향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종업원을 노동재해나 질병에서 구한다는 것은 단지 인명존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나아가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래 안전관리는 노동력의 건전한 보전과 사기(morale)의 양양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인사관리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므로 인사부서원은 물론 전체 간부들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란 우리생활에 편리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원천이기는 하지만 그 광역성으로 인하여 그만큼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염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전기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게을리 하지 말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관리는

노동력의 건전한 보전과

사기(morale)의 양양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인사관리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므로

인사부서원은

물론 전체 간부들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번영위한 에너지절약 생활속에 뿌리치자